

제 62 강

우주적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 해방

■ 성경본문 골로새서 1:1-4:18, 빌레몬서 1:1-25 ■

프렐류드(Prelude)



지중해 세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옥중 서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마주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

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스며든 이단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거짓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이 결합하여 침투하는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이지만 그 속에는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 서론(1-7절) - 인사 및 감사와 기도
2. 본론(8-22절) -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더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안에서 형제로 용납하고 영접해 줄 것을 간청하

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을 것을 약속함

3. 결론(23-25절) - 문안과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 주요 내용

1.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교회의 머리(골로새서 1:13-2:7)
2. 이단에 대한 경고(골로새서 2:8-4:6)
3. 인간 해방(빌레몬서 1:4-21)

II. 시대적 배경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방문한 적도, 설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하는 동안 설교를 들은 에바브라가 감동을 받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골 4:12-13).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방문한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동양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인해 위험에 빠져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때는 주후 57-62년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치고 로마로 도망을 와서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두기과와 함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노예가 아니라 주의 형제로 맞아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 역시 주후 63년경에 쓴 것으로 봅니다.

〈연대표〉

골로새서 기록
(주후 61 혹은 62)

빌레몬서 기록
(62)

III. 말씀과 해석

1.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교회의 머리(골로새서 1:13-2:7)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입해 온 혼합주의 이단 사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우주성과 선재성을 들어 그리스도의 우월성으로 변증합니다.

(1)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근원이심을 증언하고(골 1:15-17), 교회의 머리가 되심(골 1:18-20)을 선언합니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 주신 중보자이심(골 1:21-23)을 증언합니다.

(3) 당시 천사를 중보자로 보는 이단에 대하여 바울은 천사들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창조하심과 구원의 증거일 뿐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2. 이단에 대한 경고(골로새서 2:8-4:6)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과 지배자가 되심을 논한 후 이단에 대하여 논박합니다.

(1) 이단의 공허함(골 2:8-15)

이단이 주장하는 공허성은 할례이며, 그것은 세례로 극복되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골 2:11-12).

(2) 천사숭배의 허망함(골 2:18)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또 다른 이단은 천사 숭배였습니다(골 2:18). 이들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천사를 중보자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시며 중보이심을 강력히 반증하였습니다(골 1:20-22).

(3) 초등학교문의 이단적 성격을 논박하고 있습니다(골 2:20-23).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은 옛 생활을 지배하던 초등학교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속적인 규례나 제약 혹은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 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이상 초등학교문이 요구하는 금욕적, 율법적 요구와 제약과 규제로부터 자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열과 악의, 훼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입니다.

새사람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를 행하는 자입니다. 부부 생활(골 3:18-19),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골 3:20-21), 주종 간의 생활(골 3:22-4:1), 대인 관계 생활(골 4:5-6)에서 이 원리를 실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 인간 해방(빌레몬서 1:4-21)

빌레몬서는 바울 앞에서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영접한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향한 따뜻한 바울의 사랑은 간절한 부탁을 담은 글로 표현되었습니다. 편지는 정중한 예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간절한 청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레몬서는

1.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몬 1:10)로,
2. 유익하지만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몬 1:11)
3. 용서하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 줄 것(몬 1:16)
4. 빚진 것이 있으면 대신 갚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몬 1:18).

그러나 이 속에는 ‘인간 사랑’, ‘노예 해방’, ‘사회 정의’가 깊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인간해방 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V. 성찰과 나눔

1. 오늘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 두 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교회에 침투하여 교묘히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유사복음(할례와 천사 숭배)을 복음으로 둔갑시켜 그리스도인을 현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단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2. 오늘도 우리 주변의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 증인”, “휴거”, “물몬”, “신 천지”는 드러난 이단이고,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도 우리 주변을 수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이단인가라는 기준입니다. ‘이단’(異端-heresy)은 복음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말하면서도 그 속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둔 ‘신’(神), ‘동기’(動機-motif),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모든 시도가 이단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재성, 우주성, 십자가, 부활, 교회와 연결 짓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든 모두 이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묶어서 “초등학문”(골 2:20, 23)이라 했습니다.

3.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있는 편지입니다. 장기간 감옥살이에서 오는 처절한 고독 속에서 만난 젊은이, 오네시모, 그리고 그의 회심은 말년의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몬 1:10-11).

“낳은 아들”로까지 표현한 오네시모는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요 후계자였습니다(몬 1:13). 그러나 오네시모는 종이였으며, 나쁜 짓을 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온 범죄자였음을 알게 된 바울은 옛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지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엄’의 선언이었으며(몬 1:16), ‘노예 해방의 호소’(몬 1:16)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이콘’(icon)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노예의 해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후일 교회는 오네시모가 로마 교회의 제 2 대 감독으로 섬겼으며, 로마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증언합니다.